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혜진 마리루시 (토크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지연 안나레지나 917. 282. 1662

제1독서 | 2열왕 5,14-17

화답송 | 시편 98(97),1,2-3 ㄱ ㄴ 3 ㄷ ㄹ -4(◎ 2 참조)



(후렴) 주님은 당신 구원 - 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제2독서 | 2티모 2,8-1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17,11-19

영성체송 |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성가 | 입당 24 예물준비 241(215)
영성체 180(157) 파견 271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박성배 토마스
- 김인순 마리아(기일)
- 최규혁 미카엘

생미사 지향

- 이웅희 루카 신부님 축일 축하
- 송임경 안나를 위하여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10월 12일	김승연	이태주	민덕미	민재인	유정옥	김수현 이예진
10월 19일	정유진	김규현	이경자	김미혜	김종선	이예진 조성윤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Sr.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Sr.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Sr.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Sr.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Sr.마리루시	

* 공동체 행사로 인해
오늘 다미아노홀에서의 친교 모임은 없습니다.

10월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새 교우분 맞이

새로 오신 교우분들을 위해 본당에서 <새신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사 후 다미아노 홀 친교모임에서 만남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령회 일례회

오늘 미사 후 연령회에서 최규혁(미카엘) 형제님을 위한 연도 봉헌이 있습니다.

시간: 11:00 AM. 장소: 아래성당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646. 685. 7788 봉사자 원혜미 엘리사벳

10월 로사리오 성월, 주일 미사전 묵주기도

10월 한 달 동안 8:50AM 부터 모든 교우가 함께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SNS 성경 공동통독(마르코/마태오/루카)

대상: 전 신자(10/6-12/12)

방법: 각자 매일 1장씩 정해진 분량 읽기, 언제든지 참여 가능(늦게 참여하신 분들의 경우, 이미 진도가 나간 분량은 개인적으로 꼭 채우시길 바랍니다.)

참여방법:

1. QR 스캔 또는

<https://open.kakao.com/o/g2b2QQUh>



2. 코드 10001 입력

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12월에 성경통독을 함께 마무리하는 오프라인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2026년 주보 광고 신청

2026년 주보 광고 신청 받습니다. 사업체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바랍니다.

신청 마감 및 비용: 10/26(주일), \$ 300(수납: 재무데스크)

신청/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 주보의 기존 광고는 올해 말까지 지속됩니다.

2025년 청년신자 재교육 특강

날짜: 11/8(토), 12/13(토)

담당: 이웅희 루카 OFM, 안 마리루시 수녀

시간: 4:00PM-5:00PM(청년 미사 전)

장소: 프란시스룸(11/8), 산 다미아노 홀(12/13)

대상: 세례를 받았지만 교리를 잘 모르거나 신앙생활의 기반을 재확립하고 싶은 청년들

신청: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 특강 전 3시 30분부터 공동묵주기도가 있습니다.

미동북부 남성 제44차 꾸르실료 피정

일시: 10/23(목)-10/26(주일) 3박4일.

장소: 뉴튼 수도원 289 US-206, Newton, NJ 07860

신청: 929. 444. 1411 (울프레아 간사 민완준 필립보)

‘하늘처럼 성가대’ 지휘자 &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고 음악으로 교우들에게 봉사할 지휘자 &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반주봉사로 피아노 반주가 가능하신 분 지원 및 추천 부탁드립니다.

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 10월 19일 이웅희 루카 신부님의 축일 축하식이 미사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날 미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성화해설



시리아 사람 나아만

나병에서 치유된 나아만은 엘리사를 다시 찾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자 합니다. 화가는 두 주인공의 얼굴 표정을 세심하게 그립니다. 엘리사는 성경에 손을 얹고, 나아만이 자신이 아닌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특히 화가는 선물을 거절한 '하느님의 사람'의 뜻을 살피는 나아만의 눈빛을 묘사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음"을 나아만이 깨닫는 순간입니다.

-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212.697.1802
색소 미백 레이저 카카오톡: clearlascity1
주름 보톡스, 필러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일 체험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생명의 말씀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루카 17, 19)



전두병 요아킴 신부 | 여의도성모병원 행정부원장

오늘 제1독서는 나아만과 엘리사 예언자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나병을 앓는 아람의 장수였는데,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이스라엘 출신 하녀를 통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를 찾아갑니다.

그런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요르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담그라고 하자, 그는 너무 단순한 치료 방법에 분개합니다. 그렇지만 부하의 설득으로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강물에 몸을 담갔고, 나병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오직 주님께만 제사를 지내겠다고 합니다. 한편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열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한 사람 끼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처절하면서도 절실하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제에게 가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치유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이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었기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두고 예수님께서서는 한탄하십니다. 결국, 오늘 제1독서와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신 은총과 자비에 대한 '감사'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 청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는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사할 일이 무엇이나고 되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순간을 살게 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가까이 있는 친구들과 이웃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사회에, 특히 당신을 알고 하느님으로 고백하게 해 주신 그분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감사할 줄을 아는 사람은 겸손

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느님의 전능에 승복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한다는 것, 그것은 단지 내가 받은 호의에 대해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아울러 하느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걸맞은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숨 쉬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도 어떤 이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일상생활을 곰곰이 성찰한다면, 주님께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나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모집 >

주제: "이 눈에 빛을 주소서"(시편 13,3)

- 일시: 2026년 2월 2일 ~ 13일 (11박 12일)
- 순례지: 터키(성 바오로와 초기교회 유적지)
그리스(성 바오로 선교 여정지)
- 영적 지도: 이웅희 루카 신부님
- 신청 및 문의: 마리아투어 212-594-7773
- 신청시 준비: 여권 사본, 신청비 \$1,000,
선착순 35명
- 총 비용: \$ 3,950 + 공동경비 \$ 150